『종교와 문화』 제 39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0. pp. 71-92.

중국 역학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진몽뢰의 『주역천술』을 중심으로 -

임 재 규**

Ⅰ. 여는 말
Ⅱ. 진몽뢰(陳夢雷)의 『주역천술(周易淺述)』에 나타난 역학 분류체계
Ⅲ. 정역동(丁易東)의 『역상의(易象義)』에 나타난 역학 분류체계
Ⅳ.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역학 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역학 분류체계
1.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그 문제점
2.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 비교
Ⅴ. 결어 - 중국 역학의 새로운 분류 체계의 가능성

Ⅰ. 여는 말

중국 역학의 분류체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은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나타난 양파육종의 분류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양파는 상수파와 의리파를 가리키고, 육종은 상수파에 속하는 한대(漢代) 상수학, 한대(漢代) 재이학, 송대(宋代) 도서학과 의리파에 속하는 왕필 등의 현학, 정이 등의 유학, 양만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20009)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등의 사학을 가리킨다.[1] 중국 역학에 대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이러한 분류법은 18세기말 『사고전서(四庫全書)』가 성립한 이래 중국 역학 분류의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관신의 이 분류법은 『사고전서(四庫全書)』 경부(經部) 역류(易類)의 방대한 역학 저작에 대한 사고관신의 철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류의 권위가 지금까지 인정되어오고 있다.

중국 역학에 대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분류체계에 대해 기존 역학계에서 거의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분류체계가 역학사의 주요 저작에 대해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송대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는 상수파에 속하는가? 아니면 의리파에 속하는가? 『주역본의(周易本義)』가 '상(象)'을 『주역』 괘효사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로 보는 점에서 상수파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주역본의(周易本義)』가 『주역』 괘효사를 오로지 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의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리파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예를 더 들면, 조선후기 역학을 대표하는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주역사전(周易四箋)』은 양파육종 중 어느 파 어느 종에 속하는가? 『주역사전(周易四箋)』을 상수파와 의리파의 종합으로 보는 학자가 있으며, 혹은 『주역사전(周易四箋)』을 상수파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혹은 『주역사전(周易四箋)』을 의리파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그리고 『주역사전(周易四箋)』을 상학(象學)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주역사전(周易四箋)』에 대한 앞의 세 가지 분류는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분류법에 속하지만 뒤의 분류는 양파육종의 분류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즉 다산 역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역리사법'은 분명히 상학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바로 이 점이 다산 역학을 상수파로 분류하기 어려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산은 송대 도서역 중 소강절의 역학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역학이 송대 도서역과 다른 점을 분명히 했으며, 그리고 경방과 초연수에 대한 역학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

1)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 「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一, 2.

하고 있어 다산 역학을 상수파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사고전서(四庫全書)』에 필적하는『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라는 유서(類書)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특히『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중 역학과 관련이 있는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지하듯이『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은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유서라 할 수 있으며, 당시까지 중국 고금의 서적에 대해 분류별 편찬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는 당시까지의 역경에 대한 체계적 정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사고전서(四庫全書)』경부(經部) 역류(易類)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를 편찬한 진몽뢰의 중국역학사에 대한 관점과『사고전서(四庫全書)』경부(經部) 역류(易類)를 정리한 청대 사고관신의 중국역학사에 대한 관점은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2)]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봤을 때, 사실상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고 할 수 있다. 이는『사고전서(四庫全書)』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3)]

---

2)『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편찬한 청나라 학자 진몽뢰(陳夢雷, 1650-1741)는 저명한 문헌학자이면서 동시에『주역천술(周易淺述)』을 저술한 역학자이기도 하다. 따라서『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는 그의 역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역학의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사고전서(四庫全書)』를 편찬한 사고관신의 관점을 받아들인 양파육종이라는 분류체계가 지배적인 견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양파육종'이라는 분류체계에 의한 역학의 분류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역학의 분류체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며, 특히『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3)『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적전(經籍典) 역경부(易經部)

한편 본 연구의 주제인 중국 역학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분류법의 권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 역학의 분류체계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다만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진몽뢰(陳夢雷)와 그의『주역천술(周易淺述)』에 대한 기초적인 선행연구는 존재한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周振甫 译注,『周易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1.
汪学群,『清初易学』, 北京: 商务印书馆, 2004.
石海英,「陈梦雷研究」, 福建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郭永振,「陈梦雷易学思想研究」,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2009.

저우쩐푸는『주역역주(周易译注)』에서『주역천술(周易淺述)』의 상수학적 관점을 충분히 수용하여『주역(周易)』괘효사의 역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대륙에서『주역천술(周易淺述)』에 주의를 기울인 초기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왕슈에췬은『청초역학(清初易学)』중 제5장 '유신적정주역학(儒臣的程朱易學)'에서 진몽뢰(陳夢雷)의 역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진몽뢰(陳夢雷) 역학의 의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스하이잉의 석사논문인「진몽뢰연구(陈梦雷研究)」는 진몽뢰(陳夢雷)의 생애와 그의 주저인『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형성과정과 문헌적 가치, 그리고『주역천술(周易淺述)』의 사상적 특색을 다루고 있다. 궈용쩐의 석사논문인「진몽뢰역학사상연구(陈梦雷易学思想研究)」는 이전의 연구보다 비교적 계통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진몽뢰(陈梦雷) 역학(易学)의 상수관, 의리관, 경세관 등 진몽뢰(陈梦雷) 역학(易学)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4)]

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4)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몽뢰(陳夢雷) 역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박사논문이나 CSSCI 급 학술지에 그 연구성과가 발표된 적이 없는 기초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Ⅱ. 진몽뢰(陳夢雷)의 『주역천술(周易淺述)』에 나타난 역학 분류체계

진몽뢰(陳夢雷)는 자가 성재(省齋)이고 민현(閩縣) 사람이다.[5] 순치(順治) 7년(1650)에 태어나 21세에 진사가 되었고 관직은 한림원 편수를 지냈다.[6] 경정충(耿精忠)의 난 때 그에게 부화했다는 죄목으로 강희(康熙) 21년(1682)에 심양 상양보(尚陽堡)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역학 저작인 『주역천술(周易淺述)』(康熙 甲戌年인 1694년)을 편찬하였다.[7] 이후 사면되어 북경으로 돌아왔고, 황제의 3자인 윤지(胤祉)의 시독(侍讀)으로 기용되었다. 그 기간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라는 대작을 편찬하였다.[8] 강희제가 서거한 후 황제의 4자인 윤진(胤禛)이 즉위하니 이가 바로 옹정제였다. 이 와중에 윤진과 윤지의 알력으로 인해 진몽뢰는 다시 흑룡강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졸했다. 이때가 건륭 6년(1741)이었고 향년 92세였다.

『주역천술(周易淺述)』에 대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를 위주로 하고, 왕필(王弼)의 『주역주(周易注)』, 공영달(孔穎達)의 『소(疏)』, 소식(蘇軾)의 『역전(易傳)』, 호광(胡廣)의 『주역대전(周易大全)』, 래지덕(來知德)의 『주역집주(周易集注)』를 참고하였다. 앞의 여러 학설이 미치지 못한 바와 제가의 학설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9]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주역천술(周易淺述)』은 사실상 주자(朱子)의 『주역본

---

5) 陳夢雷, 『周易淺述(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1.

6) 陳夢雷, 『周易淺述(一)』, 1.

7) 陳夢雷, 『周易淺述(一)』, 1.

8) 1701년에서 1706년 사이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 편찬되었다. 陳夢雷, 『周易淺述』, 周易工作室 點校 (北京: 九州出版社, 2004), 3 참조.

9) 陳夢雷, 『周易淺述(一)』, 2, "以朱子《本義》爲主,而參以王弼《注》 `孔穎達《疏》 `蘇軾《傳》 `胡廣《大全》 `來知德注.諸家所未及及所見與《本義》互異者,則別抒己意以明之."

의(周易本義)』와 래지덕(來知德)의 『주역집주(周易集注)』가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4괘 중 15번째 괘인 겸괘(謙卦) 구삼(九三) 효사의 주석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九三,勞謙,君子有終,吉.
> 卦唯一陽,居下之上,剛而得正,上下所歸,有功勞而能謙,尤人所難,故有終而吉.占者如是,則如其應矣. (『周易本義』)[10]
> ② 九三,勞謙,君子有終,吉.
> 勞者,勤也.即勞之來之之勞.中爻坎爲勞卦,雖系辭去聲讀,然同此勞字也.又中爻水木有井象,君子以勞民勸相.此勞字之象也.艮終萬物,三居艮之終,故以文王卦辭君子有終歸之.
> (『周易集註』)[11]
> ③ 九三,勞謙,君子有終,吉.
> 一陽居下之上,剛而得正,上下所歸,有勞而能謙者也.謙非難,勞而能謙爲難.一陽爲成卦之主,勞矣.乃不處上而處下,故有勞而能謙之象.上不疑而下不忌,自能保終而吉也.艮終萬物,三居艮之終,得其正位,故以彖辭君子有終歸之. (『周易淺述』)[12]

위의 인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몽뢰의 『주역천술(周易淺述)』은 주자(朱子)의 『주역본의(周易本義)』를 위주로 하고, 다음으로 래지덕(來知德)의 『주역집주(周易集注)』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는 중국 역학의 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역천술(周易淺述)』을 평가했다. "『주역(周易)』을 해석한 자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대략적인 뜻은 '리(理)・수(數)・상(象)・점(占)'을 넘지 않는다."[13] 『주역천술(周易淺述)』에 대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

10) 朱熹, 『周易本義』, 廖名春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9), 86.

11) 來知德, 『周易集註』, 張萬彬 点校 (北京: 九州出版社, 2004), 277.

12) 陳夢雷, 『周易淺述(一)』, 5.

13) 陳夢雷, 『周易淺述(一)』, 2, "其《凡例》稱解《易》數千家,未能廣覽,道其實也.然其說謂《易》之義蘊不出理、數、象、占."

이와 같은 평가는 『주역천술(周易淺述)』의 「범례(凡例)」에 기반하고 있다.[14] 특히 『주역천술(周易淺述)』의 「범례(凡例)」 중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리(理)·수(數)·상(象)·점(占)'의 분류체계는 진몽뢰의 중국 역학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이라 할 수 있으며, 『주역천술(周易淺述)』의 중국 역학 분류에 대한 핵심적인 논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몽뢰는 '리(理)·수(數)·상(象)·점(占)' 이 네 가지의 상관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진몽뢰는 우선 리(理)·수(數)·상(象)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역(주易)』은 그 온축하고 있는 뜻이 비록 많지만, 대체로 '리(理)·수(數)·상(象)·점(占)'을 벗어나지 않는다. …… 부자가 말하기를 '상(象)을 세워 뜻을 다하다'고 했고, 여섯 효에 대한 해석을 일러 '상왈(象曰)'이라 했으니, 리(理)와 수(數)는 상(象)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주석한 바는 그 취상에 의거하여 해석한 것이다. 대개 상을 알면 리(理)와 수(數)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15] 그리고 상(象)과 점(占)의 관계에 대해서 "상(象)이 있으면 점(占)이 있게 된다. 『주역본의(周易本義)』는 용·말·해·달 등을 상(象)으로 보았고 길·흉·회·린 등을 점(占)으로 보았으니, 점(占)은 곧 상(象) 가운데 있는 것이다."[16]라고 했다. 이는 진몽뢰가 '리(理)·수(數)·상(象)·점(占)'의 네 가지 중 '상(象)'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몽뢰에 의하면 역학의 기본적인 분류는 이 네 가지이지만 진몽뢰는 이 네 가지 중 상(象)이 『주역(周易)』의 핵심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상(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청대 역학의 한학적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진몽뢰의 상(象)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래지덕(來知德)의 『주역집주(周易集注)』를 따르고 있다. "래씨는 특히 상을 취하는 방법이 제일 자세하다. 하나의 괘에

---

14) 陳夢雷, 『周易淺述(一)』, 5.

15) 陳夢雷, 『周易淺述(一)』, 5, "易之爲書,義蘊雖多,大抵理數象占四者盡之. …… 夫子謂立象以盡意,而全彖六爻之傳皆稱象曰,則理數之備於彖可知."

16) 陳夢雷, 『周易淺述(一)』, 6, "有象即有占.本義分龍馬日月之辭爲象,吉凶悔吝之辭爲占.然占即在象中."

17)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는 내괘, 외괘, 내호괘, 외호괘, 여섯 효의 변괘가 있으며, 변괘 중에 또 호괘가 존재한다. 이처럼 상을 취하는 방법이 이미 광범위한데 이에 착종괘의 방법을 더한다면 지나친 바가 없지 않다. …… 그리고 지금 『단전』에서 괘변을 말한 것에 대해 래지덕(來知德)의 종괘(綜卦)와 대조하여 살펴보니, 래지덕(來知德)의 종괘(綜卦)설이 이치에 합당하다."[18] 즉 진몽뢰는 취상(取象)에 있어서 래지덕의 설을 대부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착괘(錯卦)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어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래지덕과 같이 상수학의 중요한 전통인 괘변설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진몽뢰의 역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이와 같은 진몽뢰의 취상설을 정리해보면, 내괘, 외괘, 내호괘, 외호괘, 변괘, 변괘 중의 호괘, 종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진몽뢰의 리(理)에 대한 핵심적인 사상은 『주역천술(周易淺述)』의 「범례(凡例)」에 잘 나타나 있다. "『주역(周易)』이라는 책은 '리(理)·수(數)·상(象)·점(占)'이 포함하는 바가 비록 광범위하지만 그 종지는 양을 받들고 음을 누르며 때에 따라 바름을 지키는 것이 아님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선으로 나아가고 잘못을 고치게 하여 종신토록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삼가하게 해야 한다. 『주역(周易)』을 배우는 자가 진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의리를 해석함이 비록 정밀하다 하더라도, 수(數)를 탐구함이 비록 은미하다 하더라도, 상(象)을 살핌이 비록 자세하다 하더라도, 점(占)을 결단함이 비록 신령하다 하더라도 끝내는 마음과 몸에 마땅함이 없게 될 것이다."[19] 즉 진몽뢰는 『주역(周易)』의 종지가 '부양(扶陽)'과 '시정(時正)'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양(扶陽)'은 곧 천선(遷善)의 의미라 할 수 있고, '시정(時正)'은 곧 개과(改過)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몽뢰의 『주역(周易)』 사상은 결국 '개과천선(改過遷善)'의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8) 陳夢雷, 『周易淺述(一)』, 7-8, "來氏獨於取象最詳.然一卦之中內卦 ˋ外卦 ˋ二互卦 ˋ六爻變卦 ˋ變卦中互卦,取象已博.若再錯綜卦取象,亦太泛矣. …… 今凡彖傳言卦變者,俱照來氏綜卦言之,於理甚順."

19) 陳夢雷, 『周易淺述(一)』, 9, "易之爲書,雖理數象占所包者廣,大旨無非扶陽而抑陰,隨時而守正.教人遷善改過,憂勤惕厲,以終其身.學易者苟不悟此,則詮理雖精,探數雖微,觀象雖審,決占雖神,總於身心無當."

Ⅲ. 정역동(丁易東)의 『역상의(易象義)』에 나타난 역학 분류체계

역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진몽뢰의 리(理)・수(數)・상(象)・점(占)의 분류체계의 정합성을 탐구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것은 송말원초의 역학자인 정역동(丁易東)의 역학 분류체계이다.

정역동(丁易東, 생졸년 미상)은 자가 한신(漢臣)이고 무릉(武陵)[20] 사람이다. 함순(咸淳) 연간에 진사가 되었고 관직은 조봉대부(朝奉大夫), 태부시부겸추밀원편수(太府寺簿兼樞密院編修) 등을 역임했다. 원나라가 성립한 후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석단정사(石壇精舍)를 지어 후학 양성에 힘썼다.[21]

정역동의 대표적인 역학 저작인 『역상의(易象義)』의 내용에 대해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대체로 이정조(李鼎祚)의 『주역집해(周易集解)』와 주진(朱震)의 『한상역전(漢上易傳)』을 종(宗)으로 삼았다. 그러나 또 '이정조는 잡박함에 빠졌고, 주진은 기교에 빠졌다'고 했으니, 한쪽만을 위주로 하지는 않았다."[22]

정역동은 『역상의(易象義)』 중 「역통론(易統論)」에서 한대(漢代) 이후 송대(宋代)까지의 역학사를 12유파로 정리하고 있다. 정역동이 분류한 12유파는 다음과 같다. ① 의리(理)[23], ② 상(象)[24], ③ 효변(變)[25], ④ 점(占)[26], ⑤ 수(數)[27], ⑥ 악율(律)[28], ⑦ 역법(曆)[29], ⑧ 술수(術)[30], ⑨ 역사적 사실(事)[31], ⑩ 심(心)[32], ⑪ 노장

---

20)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상덕(常德).

21) 丁易東, 『易象義』(『四庫全書』 文淵閣본, 21-473), 「提要」, 1.

22) 丁易東, 『易象義』(『四庫全書』 文淵閣본, 21-474), 「提要」, 2, "大抵以李鼎祚周易集解, 朱震漢上易傳為宗, 而又謂李失之泥, 朱傷于巧, 故不主一家."

23) 호안정(胡安定), 정이천(程伊川), 장횡거(張橫渠)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24) 이정조(李鼎祚), 주자발(朱子發), 정소매(鄭少梅)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25) 심해(沈該), 도결(都潔)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26) 주자(朱子), 채백정(蔡伯靜), 풍의지(馮儀之)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27) 소강절(邵康節), 장문요(張文饒), 유지행(劉志行)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老)[33], ⑫ 불교(釋)[34] 등이다.[35] 정역동의 이러한 역학 분류체계는 진몽뢰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분류체계보다 더 자세하다. 분류체계가 더 세밀한 만큼 그 체계가 다양하지만 또한 그만큼 복잡하다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초보적인 고찰을 통해 정역동의 이 12분류체계와 진몽뢰의 4분류체계를 비교해봤을 때, 정역동의 12분류체계는 진몽뢰의 4분류체계를 포함한다. 즉, ① 의리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理論易)는 진몽뢰의 리(理)학에 해당하고, ② 상(象)으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象論易)는 진몽뢰의 상(象)학에 해당하고, ④ 점으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占論易)는 진몽뢰의 점(占)학에 해당하고, ⑤ 수(數)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數論易)는 진몽뢰의 수(數)학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몽뢰의 리(理)・수(數)・상(象)・점(占)의 분류체계는 중국 역학의 주요한 흐름을 담고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가령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주자의 역학을 분류한다면, 정역동의 분류처럼 점으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占論易)에 속하고, 또 진몽뢰의 점(占)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역동과 진몽뢰의 역학 분류체계가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분류체계보다 더 정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정역동의 12분류체계가 진몽뢰의 4분류체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진몽뢰의 4분류체계가 정역동의 12분류체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

28) 정강성(鄭康成)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29) 경방(京房)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30) 『역림(易林)』, 『궤혁(軌革)』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31) 간보(干寶), 조자지(晁子止), 양정수(楊廷秀)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32) 양경중(楊敬仲), 전자시(錢子是), 황경원(黃景元)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33) 왕보사(王輔嗣), 한강백(韓康伯), 정태지(程泰之)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34) 이통현(李通玄) 등이 이 유파에 속한다.

35) 丁易東, 『易象義』(『四庫全書』 文淵閣본, 21-479), 「易統論」, 1, "易之爲書,由漢以來解者甚衆,各是其是爲說紛然,以其所主不同故也.余嘗類而別之.大抵其義例十有二.一曰以理論易, 二曰以象論易,三曰以變論易,四曰以占論易,五曰以數論易,六曰以律論易,七曰以曆論易,八曰以術論易,九曰以事論易,十曰以心論易,十一曰以老論易,十二曰以釋論易."

즉 앞에서 정역동과 진몽뢰의 분류체계가 일치하는 리(理)·수(數)·상(象)·점(占)의 분류 외에 나머지 8분류를 살펴보면, 이 8분류가 진몽뢰의 4분류에 포괄될 수 있다. ③ 효변으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變論易)는 진몽뢰의 상(象)학과 연결될 수 있고, ⑥ 악율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律論易)와 ⑦ 역법으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曆論易)는 진몽뢰의 수(數)학에 연결될 수 있고, ⑧ 술수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術論易)는 진몽뢰의 점(占)학에 연결될 수 있고, ⑨ 역사적 사실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事論易), ⑩ 심(心)으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心論易), ⑪ 노장으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老論易), ⑫ 불교로 『역』을 해석한 유파(以釋論易)는 진몽뢰의 리(理)학과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초보적인 고찰에 의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역동(丁易東)의 중국 역학 12분류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	정역동(丁易東)의 중국 역학 12분류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의 비교
① 理	① 理	① 理 = ① 理
② 象	② 象	② 象 = ② 象
③ 變		③ 變 → ② 象
④ 占	③ 占	④ 占 = ③ 占
⑤ 數	④ 數	⑤ 數 = ④ 數
⑥ 律		⑥ 律 → ④ 數
⑦ 曆		⑦ 曆 → ④ 數
⑧ 術		⑧ 術 → ③ 占
⑨ 事		⑨ 事 → ① 理
⑩ 心		⑩ 心 → ① 理
⑪ 老		⑪ 老 → ① 理
⑫ 釋		⑫ 釋 → ① 理

〈표 1〉 정역동(丁易東)의 중국 역학 12분류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의 비교

Ⅳ.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역학 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역학 분류체계

1.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그 문제점

앞에서 정역동(丁易東)의 중국 역학 12분류체계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에 수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가 정역동(丁易東)의 중국 역학 12분류체계와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정합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는 중국 역학의 발전사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체계로서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역학계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를 비교한다면 어떠할까? 우선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분류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좌전(左傳)』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점례는 대체로 태복(太卜)의 유법(遺法)과 같을 것이다. 한유(漢儒)는 상수(象數)를 언급했는데, 옛날과 그리 멀지 않았다. 한 번 변하여 경방 `초연수는 기상(禨祥)에 빠졌고, 다시 변하여 진단 `소강절에 이르러 조화(造化)를 궁구했다. 이에 역은 마침내 백성의 쓰임에 절실하지 않았다. 왕필(王弼)이 상수(象數)를 쓸어버리고 노장(老莊)으로 해석하였으며, 한 번 변하여 호원(胡瑗) `정자(程子)에 이르러 비로소 유리(儒理)를 천명했으며, 다시 변하여 이광(李光) `양만리(楊萬里)에 이르러 다시 역사적 사실(史事)을 가지고 역을 해석했다. 이에 역은 마침내 날로 그 논단을 열게 되었다. 이것이 양파육종(兩派六宗)으로 서로 공박하며 발전했다.[36]

---

36)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 「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一, 2. "左傳所記諸占,蓋猶太卜之遺法,漢儒言象數,去古未遠也.一變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분류체계는 양파육종(兩派六宗)이다. 즉 ① 상수(象數), ② 기상(禨祥), ③ 조화(造化), ④ 노장(老莊). ⑤ 유리(儒理), ⑥ 사사(史事)의 6분류체계이다.[37] 이러한 6분류체계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역학의 발전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 6분류체계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면, ① 상수(象數)는 글자 그대로 상(象)과 수(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② 기상(禨祥)은 역의 본래적인 기능인 점(占)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③ 조화(造化)는 역수(易數)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뒤의 ④ 노장(老莊). ⑤ 유리(儒理), ⑥ 사사(史事)는 리(理)라는 분류로 묶을 수 있다. 즉 노장(老莊)이나 유리(儒理)나 사사(史事)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리(理)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류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역학사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측면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상수(象數), ② 기상(禨祥)은 한대(漢代)에서의 역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③ 조화(造化)는 송대의 도서학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④ 노장(老莊)은 위진시대의 왕필 역학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으며, ⑤ 유리(儒理)와 ⑥ 사사(史事)는 송대 정이천을 대표로 하는 유학적 의리역과 양만리를 대표로 하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6분류체계는 역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중국 역학 분류체계로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而為京 `焦,入於禨祥,再變而為陳 `邵,務窮造化,易遂不切於民用.王弼盡黜象數,說以老莊.一變而胡瑗 `程子,始闡明儒理,再變而李光 `楊萬里,又參證史事,易遂日啟其論端.此兩派六宗,已互相攻駁.”

37) 물론 兩派는 2분류체계이다. 다만 2분류체계는 너무 간단한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2.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 비교

그렇다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는 ① 상수(象數), ② 기상(禨祥), ③ 조화(造化), ④ 노장(老莊). ⑤ 유리(儒理), ⑥ 사사(史事) 등이고,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는 ① 상(象), ② 점(占), ③ 수(數), ④ 리(理) 등이다. 이 두 분류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를 역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로 다시 정리하면, ① 상수(象數)는 그대로 상(象)과 수(數)가 합친 것이고, ② 기상(禨祥)은 점(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③ 조화(造化)는 수(數)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④ 노장(老莊), ⑤ 유리(儒理), ⑥ 사사(史事)는 리(理)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의 비교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의 ① 상수(象數)는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의 ① 상(象)과 ③ 수(數)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② 기상(禨祥)은 진몽뢰(陳夢雷)의 ② 점(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③ 조화(造化)는 진몽뢰(陳夢雷)의 ③ 수(數)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④ 노장(老莊). ⑤ 유리(儒理), ⑥ 사사(史事) 이 세 분류는 진몽뢰(陳夢雷)의 ④ 리(理)로 묶을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의 비교
① 象數	① 象	① 象數 ≒ ① 象 + ③ 數
② 禨祥	② 占	② 禨祥 ≒ ② 占
③ 造化	③ 數	③ 造化 ≒ ③ 數
④ 老莊		④ 老莊 → ④ 理
⑤ 儒理	④ 理	⑤ 儒理 → ④ 理
⑥ 史事		⑥ 史事 → ④ 理

〈표 2〉『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 비교

이렇게 보면,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가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보다 더 완정한 분류체계임을 알 수 있다.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가 보다 더 완정한 분류체계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분류체계가 역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근거한 분류체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는 역학사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특색을 정리하다 보니, 역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보다 시대별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로 인해 분류체계의 정합성을 갖추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Ⅴ. 결어 - 중국 역학의 새로운 분류 체계의 가능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진몽뢰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가 기존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서론에서 제기했던 즉 『사고전서총목제

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주자 및 다산의 역학이 진몽뢰의 4분류체계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주자 역학의 경우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그런데, 진몽뢰의 4분류체계에서 주자의 역학은 '점(占)'의 분류에 속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는 앞에서 살펴본 정역동의 12분류체계에 있다. 정역동에 의하면, 점(占)으로 『역(易)』을 해석한 유파(以占論易)로 주자(朱子), 채백정(蔡伯靜), 풍의지(馮儀之)를 들고 있다.[38] 이러한 인식은 진몽뢰의 인식과도 서로 상통한다. 진몽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의(本義)』는 용(龍)・마(馬)・일(日)・월(月)의 역사(易辭)를 상(象)으로 보았고, 길(吉)・흉(凶)・회(悔)・린(吝)의 역사(易辭)를 점(占)으로 보았다."[39] 즉 진몽뢰는 『주역본의(周易本義)』의 역사(易辭) 구성을 상(象)과 점(占)으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자 역학의 성격은 상(象)과 점(占)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주역본의(周易本義)』의 역사(易辭) 구성에 대한 주자의 이해는 상(象)과 점(占)이라 할 수 있지만, 정역동이 지적했듯이 『주역본의(周易本義)』의 역사(易辭)에 대한 해석은 주자는 점(占)을 위주로 하였고 상(象)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미진한 바가 없지 않다.[40] 진몽뢰도 취상(取象)에 있어서는 주로 명대(明代) 래지덕(來知德)의 취상 이론을 참고했다.[41] 따라서 진몽뢰의 주자 역학에 대한 핵심적인 인식을 '점'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조선후기의 대학자 정약용(丁若鏞)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독창적인 역학 저서를 남겼는데, 『주역사전(周易四箋)』과 『역학서언(易學緖言)』이 그의 대표적인 역학 저서이다. 그런데, 그의 역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

38) 丁易東, 『易象義』(『四庫全書』 文淵閣본, 21-479~481), 「易統論」, 1~4 참조.

39) 陳夢雷, 『周易淺述(一)』, 6, "本義分龍馬日月之辭爲象,吉凶悔吝之辭爲占."

40) 丁易東, 『易象義』(『四庫全書』 文淵閣본, 21-480), 「易統論」, 2 참조.

41) 陳夢雷, 『周易淺述(一)』, 7, "解易數千餘家,未能廣覽.來氏獨於取象最詳."

류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산 역학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학계의 평가이다. 만약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체계가 아닌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산 역학에 대한 분류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즉 다산 역학은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象)'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역학의 중심 이론인 '역리사법(易理四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역리사법(易理四法)'의 추이(推移), 물상(物象), 호체(互體), 효변(爻變)의 네 가지 이론은 사실상 '물상(物象)'이 중심이며 나머지 세 이론은 '물상(物象)'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산 역학을 진몽뢰(陳夢雷)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象)'학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6분류체계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진몽뢰의 중국 역학 4분류체계가 동아시아 저명 역학 저작의 성격에 대해 보다 정합적인 분류를 제시함으로써 역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동아시아 역학계에도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역학, 분류체계, 진몽뢰, 『주역천술』, 『사고전서총목제요』, 이(理), 수(數), 상(象), 점(占)

원고접수일: 2020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8일

참고문헌

馬端臨.『文獻通考』.『(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610~616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來知德.『周易集註』.『(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32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呂祖謙.『古周易』.『(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15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吳澄.『易纂言』.『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影印本, 1997.

陸德明.『經典釋文』.『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影印本, 1997.

王雲五 主持.『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

王應麟.『玉海』.『(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943~948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王引之.『經義述聞』. 江蘇古籍出版社, 2000.

王弼・韓康伯 注, 陸德明 音義, 孔穎達 疏.『周易註疏』.『(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7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李光地.『御纂周易折中』.『(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38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李鼎祚.『周易集解』.『(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7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丁易東.『易象義』.『(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21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程頤.『伊川易傳』.『(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9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鄭玄.『周易鄭康成註』.『(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7冊)』, 王應麟 編,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陳夢雷.『周易淺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_____.『周易淺述』.『(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43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_____.『古今圖書集成(55)』. 臺北: 鼎文書局, 1985.

陳振孫.『直齋書錄解題』.『(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674冊)』.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項安世.『周易玩辭』.『(索引本)通志堂經解・易3』.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影印本,

발행년 미상.
『易學緖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周易四箋 Ⅰ・Ⅱ』. 『定本 與猶堂全書 15・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郭永振. 「陈梦雷易学思想研究」.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2009.
廖名春・康學偉・梁韋弦. 『周易研究史』. 湖南出版社, 1991.
刘大钧 主编. 『大易集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潘雨廷. 『讀易提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石海英. 「陈梦雷研究」. 福建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楊萬里. 『誠齋易傳』. 宋淑洁 點校, 北京: 九州出版社, 2008.
엄연석. 「程頤 『易傳』의 易學理論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國立北平圖書館, 1935.
汪学群. 『清初易学』. 北京: 商务印书馆, 2004.
이세동. 「朱子 《周易本義》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이창일. 『소강절의 철학-先天易學과 상관적 사유』. 심산, 2007.
林忠军. 「丁易东象数易学」. 『周易研究』. 1998年第2期 (总第三十六期).
张克宾. 「朱熹易学思想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2010.
정병석. 『주역』. 을유문화사, 2010.
정약용. 『역주 주역사전』. 방인・장정욱 옮김, 소명출판, 2007.
程頤. 『周易程氏傳』. 王孝魚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11.
朱伯崑. 『易学哲学史』. 北京: 华夏出版社, 1995.
朱彝尊. 『經義考新校』. 林慶彰·蔣秋華·楊晉龍·馮曉庭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朱熹. 『周易本義』. 廖名春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9.
_____.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周振甫 译注. 『周易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1.
『中华易学大辞典』. 编辑委员会 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陳夢雷. 周易工作室 點校.『周易淺述』. 北京: 九州出版社, 2004.
胡渭.『易圖明辨』. 鄭萬耕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8.
黃宗羲.『易學象數論(外二種)』. 北京: 中華書局, 2010.
———.『宋元學案』. 全祖望 續修, 王梓材 校補, 河洛圖書出版社, 中華民國 64年.

Abstract

A Study on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Chinese *Yijing* studies

- Focusing on Chen Menglei's (陳夢雷) *Zhouyi Qianshu* (周易淺述) -

Im, Jaeky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Yijing* (*Book of Changes)* commentaries in the *Siku Quanshu Zongmu Tiyao* (四庫全書總目提要) has become the dominant classification system used for Chinese *Yijing* studies. This method divides them into six types, namely: "Image and Number" (象數) from the Han Dynasty, "Extraordinary Phenomena" (災異) from the Han Dynasty, "Study of charts and books" (圖書學) from the Song Dynasty, "Daoism," "Confucianism," and "Histor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classification of Chinese studies of the *Yijing* has become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since the creation of the *Siku Quanshu* (四庫全書)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However, there is no satisfactory theory to explain this six-fol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Siku Quanshu Zongmu Tiyao* (四庫全書總目提要), and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suitable for the main commentarial works on the *Yijing*. For example, it poses difficulties when trying to fit Zhu Xi's *Zhouyi Benyi* (周易本義) and Jeong Yak-yong's *Zhouyi Sijian* (周易四箋) into the six-fold classification system. In view of this problem, I reviewed the possibility that the "Li (理)·Shu (數)·Xiang (象)·Zhan (占)" four-fold classification system of Chinese *Yijing* commentaries proposed in Chen Menglei's (陳夢雷) *Zhouyi Qianshu* (周易淺述) could replace the six-classification system of the *Siku Quanshu Zongmu Tiyao* (四庫全書總目提要).

Key Words : New classification system, Chinese *Yijing* studies, Chen Menglei (陳夢雷), *Zhouyi Qianshu* (周易淺述), *Siku Quanshu Zongmu Tiyao* (四庫全書總目提要), Li (理), Shu (數), Xiang (象), Zhan (占)